

우간다에서 온 편지

지난 한 주간 유치원과 저학년 친구들 소풍 다녀왔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간다 수도인 캄팔라여행을 다녀옵니다. 선생님과 월광기독교학교에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다녀온 사진 몇 장 보내드리고 캄팔라 다녀와서 또 연락드릴게요.









smi9191



smi9191

필리핀에서 온 편지

안녕하십니까?

월광 기독학교 로가톤을 통해 후원을 받게 된 필리핀 민다나오 섬, 다바오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균호 선교사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의 필리핀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후원금에 저희가 참으로 놀랍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월광 기독학교 학생들이 이 땅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로가톤을 통해 열심히 후원금을 모아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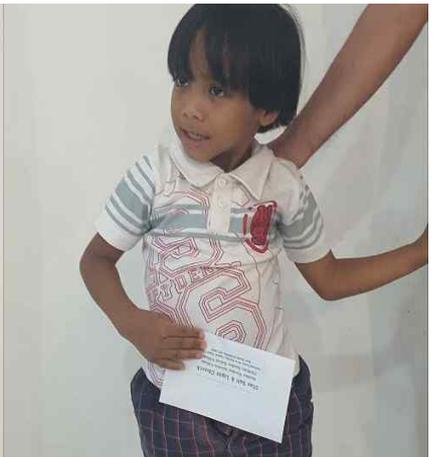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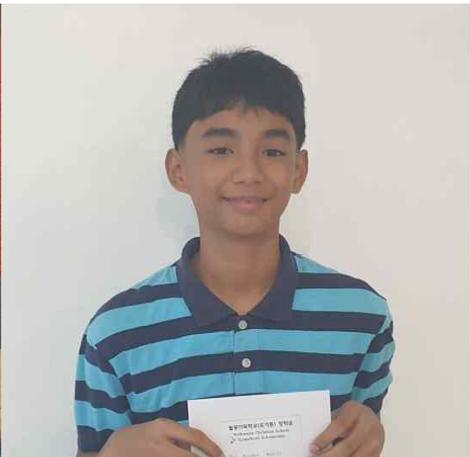
이번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참 여러 곳의 아이들과 환우를 위해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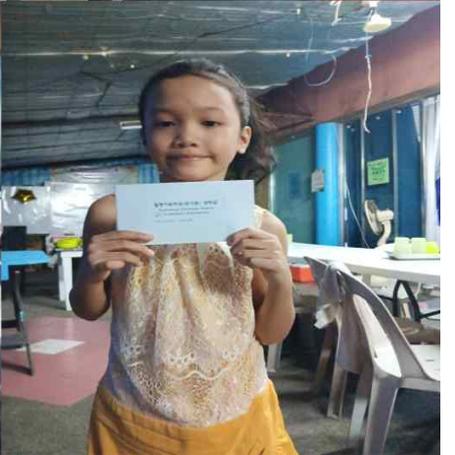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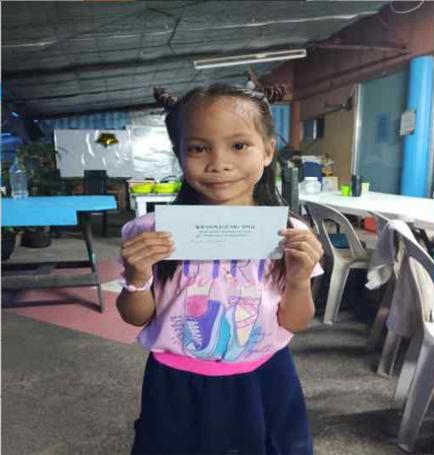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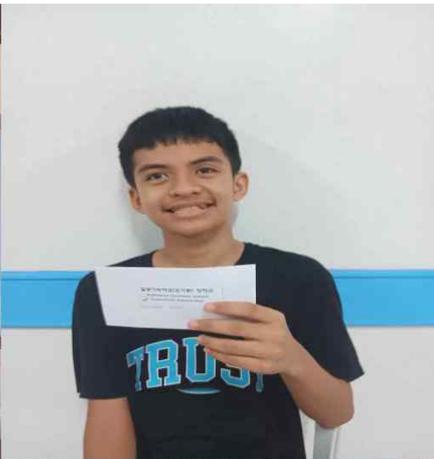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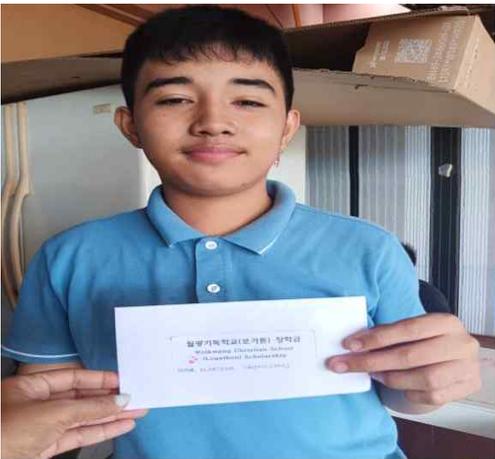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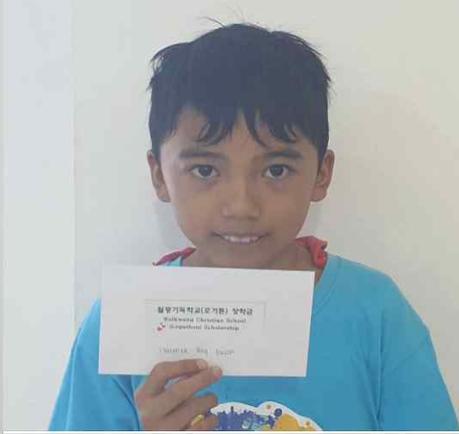
먼저는 쓰레기 마을에 사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었고, 너무 빈곤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편부모 가정, 고아들과 그 외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학교를 조금이라도 어깨를 피고 다닐 수 있도록 총 43명의 아이들에게 월광 기독학교 로가톤 장학금을 나눠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명의 환우를 위해 사랑의 헌금을 나눌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당장 담낭제거 수술을 해야 하는 뇌졸중 환자분이었고, 한 아이는 혈우병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는 아이인데 당장 혈소판을 투여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기에 후원금으로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쓰레기 마을은 아직도 깨끗한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지 않고 물을 길러 다니고 빗물을 받아서 식수를 만들고 하루 종일 4사람 한 가족이 패트병을 주워서 팔아 500원으로 하루를 생활해야 하는 아직도 최대 빈민층 사람들인데 이번에 후원금으로 식사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을 기억해주시고 여러 아이들과 환우들, 쓰레기 마을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뻗쳐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월광 기독학교 로가톤 후원금을 위해 애써주신 학생 여러분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주님안에서 평안하세요. 살롬 !

필리핀 민다나오섬 다바오에서 박균호, 지현정 선교사 올림









혈우병 데이브와
로이아저씨 담낭 수술



쓰레기마을에서 우리친구들이 살아요



